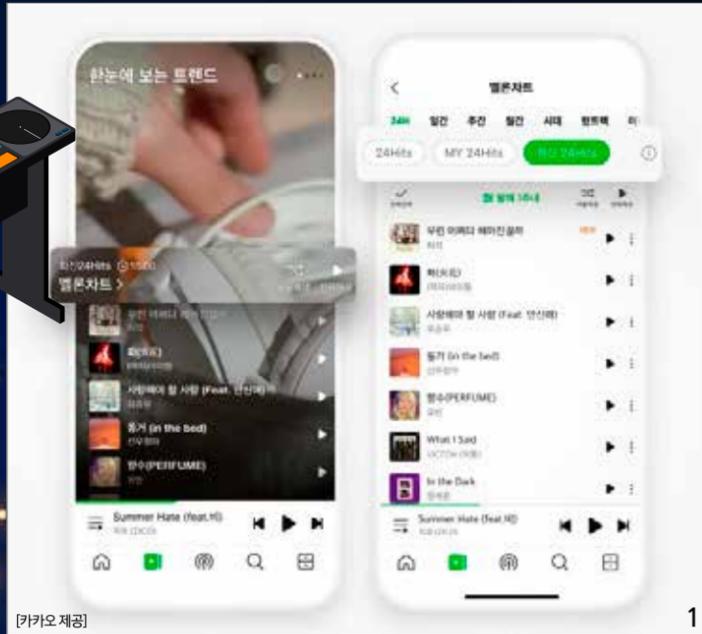


논란 끝 복귀한 가수들 비난과 음원차트 간 온도 차는 왜 생길까?



1 최신 인기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음원 플랫폼 멜론의 신규 차트 '최신 24히트'(24hits)
2 싱글 '꽃길' 이후 약 4년 만에 컴백한 빅뱅 3 MC몽

트리밍(실시간 재생)과 음악방송 '투표'를 했다는 인증샷을 올리며 화력을 과시했다. 지난 16년간 새 음반을 낼 때마다 차트 정상에 선 이들이지만 일각에선 화려한 복귀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그 사이 멤버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그룹을 탈퇴했다. 9개 혐의를 받은 그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멤버 탑과 지드래곤도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불미스러운 논란에 휘말린 이력이 있다.

그런 탓인지 빅뱅은 '봄여름가을겨울' 가사에서 '지난 밤의 트라우마 다 묻고/ 목숨 바쳐 달려올 새 출발 하는 왕복선/ 변할래 전보다는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더 나은 사람 더욱더'라고 노래하며 변화를 다짐했다.

그룹 빅뱅이 지난달(4월) 4년 만의 신곡 '봄여름가을겨울'을 냈다. 동방신기와 함께 2세대 아이돌 그룹의 대표주자인 빅뱅을 추억하는 국내의 팬들은 크게 반겼다. 오랜 공백을 낀 음원인지라 예상대로 음원차트와 음악 프로그램 1위로 직행했다. 팬들은 '스



빅뱅·이수·이센스 사회적 논란에도 복귀 음악엔 호평

논란의 스타가 활동을 재개할 때 도덕성에 대한 비판과 음원차트의 온도 차는 이미 여러 차례 목격됐다.

병역 기피 혐의를 받은 MC몽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지난 2014년 5년 만에 컴백했을 때다. 비난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의 6집 '미스 미 오아 디스 미'(Miss me or Diss me)는 9개 차트 1~10위를 휩쓸었다. 연예계에서 병역 문제는 특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10여 년이 흘러도 MC몽의 신보가 나올 때마다 비난 댓글과 싸늘한 시선은 여전하다. 반대 여론에 방송 출연도 막혀있다. 그런데도 음원은 대중적으로 소비되며 차트에서 잇달아 선전했다.

2009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엠씨더맥스의 이수도 뮤지컬과 방송 출연은 불발됐지만, 차트 정상을 찍으며 '음원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래퍼 이센스는 2015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복역했는데, '옥중'에서 낸 앨범이 호평받으며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니 문제를 일으킨 가수의 음반을 둘러싸고 종종 음원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해당 가

수들에 대한 음원 소비가 합당한가를 두고서다. "죄는 미워하되 음악은 미워하지 말자", "음악 소비는 개인의 자유"란 견해부터 "자숙 후 복귀 공식이 불편하다", "10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까지 분분하다.

"죄는 미워도 가수는 안 미워" 다수 대중은 행위와 음악 분리

그렇다면 비판 여론과 음원차트의 온도 차이는 왜 생길까.

음악 소비자 중에선 가수의 문제와 작품을 동일시하는 이들도 있지만, 별개로 보는 이들이 더 많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는 문제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개인의 일탈일 경우 가수를 향한 도덕적 잣대와 취향에 따른 음악 소비를 구분한다는 얘기다. 특히 가요계에선 이러한 '샤이 리스너'에 주목한다. 적극적인 비판의 목소리 이면에 침묵하는 대중이 있기 때문이다. 한 음반 전문 홍보사 대표는 "반사회적 범죄가 아니라면, 딱히 열성적인 팬이 아니더라도 자숙과 반성을 보인 가수의 음악을 수용하는 침묵하는 대중이 있다"면서 "이들은 온라인에서 적극적인 비판도 옹호도 하지 않지만, 음악은 소비한다"고 짚었다. 게다가 논란 끝에 음원 강자였던 가수가 컴

백할 경우엔 이들이 어떤 음악을 내놓을지에 대한 '호기심 청취'도 가세한다. 한 음반 기획사 이사는 "가수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24시간 누적 이용자가 40만~60만 명 정도면 멜론 일일 차트 1위를 한다"며 "이용자 수백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어서 기존 충성도 높은 팬덤에 샤이 리스너, 호기심을 가진 이들의 소비가 합해지면 비판 여론과는 온도 차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돌 품행에 대한 윤리적 기준은 높아져

다만, 예전보다 아이돌 가수의 경우 윤리적 문제에 관한 팬들의 목소리는 한층 적극적으로 변화했다.

학교폭력 등 과거 일을 문제 삼아 멤버 탈퇴를 요구하거나, 기획사의 품수 대응에는 매몰차게 등을 돌리기도 한다. 다른 기획사 홍보실장은 "아이돌 팬 다수는 여전히 이미지, 음악 등에서 총체적인 완성형을 기대한다"며 "그로 인해 일부는 논란이 발생했을 때 가수들의 범법 유형이나 기획사가 축소 또는 거짓 해명을 하는지를 가려 이들의 음악 활동을 계속 지지할지 판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